

대전문화재단 설립 본격화

오늘 시청서 발기인 대회

대전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을 주도할 대전문화재단 설립절차가 이번주중 본격화 된다.

대전시는 14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박성호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전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.

발기인 대회가 끝난 직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첫 이사회에서는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 3-5명을 박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.

박 시장이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시는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설립등기 신청을 법원에 내 설립등기를 받는 대로 사무처장 이하 직원 채용공고를 이번주중 발표할 계획이다.

지난해 9월 대전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민간주도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시작으로 그동안 시는 공청회,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6월5일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.

대전문화재단은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대전시 관계자는 “문화재단 설립으로 정부공모사업 및 국비지원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프로젝트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앞으로 재단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 문화재단은 전국 16개 시·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8개 시·도에 설립돼 운영 중이다.

김효숙 기자 press1218@daejonilbo.com

<저작권자©대전일보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>